

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10강 예수의 고별 기도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3-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족식 의미와 고별설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 세족식은 제자들의 죄를 씻는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고, 예수의 모범대로 행해야 할 윤리적 함의가 있습니다.

2) 예수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별설교에 나타난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과 새로운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게 인도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보혜사는 보수적 기능과 진보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예수가 떠나간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준 것이 있다면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고별설교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기도할 특권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예수의 부재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 | |
|--|
| 1)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14:13) |
| 2)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14:14) |
|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15:7) |
| 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15:16) |
| 5)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16:23-24) |
| 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16:26) |

1) 이 기도의 패턴은 15:7을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절) 예수가 응답하겠다.

-조건절에 15:7을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조건적) 예수와 신자가 상호 거하면

2) 이 기도는 한 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예수와 신자가 상호 내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3) 이러한 기도는 어떤 사람의 말대로 “사권의 기도”일 것입니다. 누가의 기도 특색이 “강령의 기도”라면 요한의 기도 특징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권”의 기도입니다.

3.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고별설교를 마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족장들이 유언할 때 자녀를 축복함으로 말을 마치는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창 49:1-27; 신 31:30-32:47).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 요한

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고별기도입니다.

4.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II. 요한복음 17장 내용 개관

1.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 1)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 중간에 서서,
- 2) 또 제사장이 하듯이 자신을 성별하고(19절), 제자들을 성별하는 기도를 한 것(17절)을 볼 때 이러한 관점은 정당합니다.

2. 예수님은 고별기도를 한 후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볼 때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 1) 1-5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 2) 6-19절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 3) 20-26절에는 미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1. 예수 자신과 관계된 기도(1-5절)
2. 예수의 첫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절)
3. 미래에 형성될 교회를 위한 기도(20-26절)

3. 자신과 관계된 기도 부분(1-5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업을 예수가 완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6-19절) 그들이 세상에서 보존되는 것(11, 15절),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13절), 그들의 거룩(17-19절)과 하나됨(11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20-26절에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절은 각각 20-21절과 22-23절 사이에 문학적 평행이 있습니다.

- a.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b.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c.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a1.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b1.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c1.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6.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하나가 됨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III.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치가 아닌 것

일치라는 말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1) 예를 들어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지요.

2) 집안에 질서가 없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일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입해서 그것이 일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수님이 말하는 일치는 획일성(uniformity)이 아닙니다.

1) 우리는 가부장적 유교 문화와 위계적 군대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라고 하면 으레 모두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소에 가면 똑같은 군복을 입혀 놓고 이름도 없이, '1번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획일성이라고 합니다.

2)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만 보아도 성격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지만 적극적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순교하고 요한은 장수하지만 다 훌륭한 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3) 사실 획일성은 정통보다는 사교의 특징입니다. 대개 사이비 단체에 가면 교주와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특색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교주는 개인의 특색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아바타로 만드는 것입니다.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등 독재자들은 모두 획일적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수

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치가 아닙니다.

2.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치는 신비주의적 연합(mystical union)만도 아닙니다.

1) 고래로 수도사들은 신비적 연합을 꾀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기도 와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봉쇄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 과 담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높게 평가 합니다. 저도 요즘 사실 수도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 목사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사람 과 너무 많이 만나면서 정작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2) 하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연합만 있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님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치는 아닙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일치를 이루 면 세상이 그것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치는 하나님과만 신비적 연합만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치는 자신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타인이 필요합니다. 하 나님과의 교제 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일치로 나 타나야 올바른 일치입니다.

3)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 안에서 개혁해 야지, 세상에다 대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잘못된 점이 많아도 교회에 머물러 교회를 개혁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3. 본문이 말하는 일치는 양보적 일치(ecumenical union)도 아닙니다.

1) 현실 정치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다가도 늘 타협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적 일치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사실 양보하면 나중에 이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이 말하는 일치는 그런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 치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로서 서로 사랑과 신뢰로 일치를 이룹니 다. 서로 이해하고 알고, 뜻을 받들고, 영광을 돌리는 일치입니다. 타협해서 얻는 어떤 일치가 아 닌 것입니다. 제가 타협해서 얻는 일치를 나쁘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사에 늘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치는 그런 일치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2) 기독교에서 하는 양보적 일치 중에 에큐메니컬 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 신조가 약간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발휘해서 서로 협동하고 좋은 일을 같이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 일치 는 아닙니다. 임시적인 일치요, 인간적인 일치입니다. 궁극적 일치는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하시는 일치 란 바로 그런 일치입니다.

IV. 예수님이 말하는 일치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치란 어떤 일치인가요?

1. 본문이 말하는 일치는 삼위일체에 근거한 신적 관계의 일치입니다.

1)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자들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를 이루듯이 신자가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요한복음 10:30에 보면 “나[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송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해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은 하나이고, 예수님은 아들로써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줍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 됨입니다.

3)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일치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지만, 관계적으로는 상호적이고 평등한 일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10:30).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이루어야 하는 일치의 모델입니다.

4)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치는 이렇게 높은 정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일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이러한 종류의 일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말하는 일치는 교회로서의 일치입니다.

1) 일치라는 말은 헬라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말로는 ‘야하드’입니다. 쿤란 공동체는 자신들을 ‘야하드’(하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곧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고 기도한 것은 곧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개별 신자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16과 11:52에도 하나 되는 것이 나오는데 모두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든 것은 이들로 나중에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모임이 교회입니다(마 18:20).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교회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원

하십니다.

3) 이 '일치'는 교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 속에서 보여 지는 교회의 일치입니다 (17:26; 13:34-35; 요일 4:7-12). 이러한 수직적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이 꿈꾸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까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 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수직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서로 교제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일 1:1-4). 그래서 교회라는 발음을 그대로 사용하면 교회는 敎會(가르치는 모임)가 아니라 交會(교제하는 모임)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교제하는 모임이라고 이해할 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직적 교제 없이 수평적 교제만 있는 모임은 자유 시민의 모임을 될 수 있어도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적 교제가 없이 수직적 교제만 있다면 그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수직적 교제만 있는 모임은 신비주의가 되고, 수평적 교제만 있는 모임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비록 수직적 교제에 그 강조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이 꿈꾼 교회입니다.

3.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치는 사랑의 일치, 성숙의 일치입니다.

1) 이제 일치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 세상이 그 일치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불신앙 집단인 유대인 당국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2)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수동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성숙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시안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3) 이것은 보이는 일치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간에 사랑의 일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V. 나가는 말

1.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후 하신 고별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이것을 오해, 때로는 곡해해서 획일적 일치, 신비적 일치, 양보적 일치로 보려 했습니다.

2)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신적 일치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랑과 성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고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교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3.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8-19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